



곡성 세계장미축제 21일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이 휴일을 맞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장미축제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5·18로 촉발된 개헌 정치권서 탄력 받나

靑, 원내대표 회동서 추진 강조
권력구조 개편 맞물려 정국 화두

문재인 대통령이 제37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강조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개헌은 5·18 정신을 담는 것은 물론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이 함께 맞물린다는 점에서 호남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여기에 대선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야권도 개헌을 토대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은 정국의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개헌은 ‘국민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전제되고 있다. 개헌의 방향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촛불혁명 등 민주화 운동 전문 포함 ▲노동권·기본권 및 기업의 책임 강화 ▲4년 중임제 전환·결선투표

제 도입·선거제도 개편 ▲자치 입법 및 재정 강화 등 지방분권 ▲3권 분립 강화 및 사법부 민주성 확대 등이 꼽힌다.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민주화 정신 포함 등 ‘기본권 재정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제각각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함몰되기 보다는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슈를 끌어가면서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반영 등 민감한 이슈는 최대한 배제하고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논의의 골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선 전 국회 개헌특위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합의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대행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으로 다수당, 소수당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해 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바른정당은 분권형 개헌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유승민 의원 등을 중심으로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고 개헌의 전단계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개헌의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다른 구상을 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개헌에 앞선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의 주제 등을 놓고도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개혁 입법을 위한 협치, 야권에서는 정치적 활로를 위한 개헌 카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점점 찾아가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개헌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홍빈 대장 로체 등정
장애인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0개 봉 정상 올라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3) 대장이 세계 제4위 고봉 로체(Lhotse·8516m) 등정에 성공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차 완등에 도전 중인 김 대장은 이로써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10개 봉 정상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인터뷰 22면>

‘희망나눔 2017 한국 로체 원정대’(단장 정원주)에 따르면 김 대장은 지난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전 11시15분) 세르파와 함께 로체 정상을 밟았다. 이날 새벽 0시 로체 서벽의 제4캠프(7800m)를 출발해 눈보라와 강풍 등 악천후를 뚫고 8시간 만에 등정을 이뤄낸 것이다. 김 대장은 당초 5·18 37주년을 기념·추모하기 위해 등정일을 지난 18일로 잡고 15일 베이스캠프를 출발해 제1캠프(6050m)와 제2캠프(6400m)까지 도달했으나 강풍예보로 16일 하루 더 제2캠프에 머물렀다. 이어 17일 제3캠프(7300m), 18일엔 제4캠프까지 진출한 뒤 19일 정상 공략에 나섰다.

지난 1991년 북미 매킨리(6194m) 단독 등반 중 사고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김 대장은 1997~2009년 세계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오른데 이어 2006년 가셔브롬 II (8035m)·시사파마(8027m)를 시작으로 히말라야 8000m급 거봉들을 차례로 등정해 ‘희망전도사’로 불린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경제부총리 김동연·외교장관 강경화 靑 안보실장 정의용·정책실장 장하성

文대통령 지명·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71) 전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프로필 3면>

이와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70)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홍석현(68)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명과 관련,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자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기재부 차관과 국조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어려움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외무고시 출신의 외교부 첫 여성국장과 한국 여성 중 유엔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등 외교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최고 여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외교 전문가로, 내각 구성에서 성 평등이란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 의장과 제네바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에 대해 “저와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정치·경제를 바라보던 분이지만 경제 문제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잡아야 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지명

법무차관 이금로
대검찰장 봉욱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법무부검찰국장 박균택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으로 있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난 19일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련기사 2·7면>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 대통령은 21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과 봉욱(51·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51·연수원 29기) 서울고법 전 판사를 임명했다. 앞서 지난 19일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51·연수원 21기)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무안↔하노이 직항
하노이·하롱베이

6월 3일(토)~8월 14일(월) | 3박5일
비엠펙항공(VJ항공) : 19항차 운영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 총장점
062) 228-1199

<p>하나Pack 캐주얼 AVPF11_VJ2 하롱베이 비경관광(\$50상당) 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p> <p>총 상품가격 7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p>☑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 하롱파크 (\$50상당) ☑ 특식 : 3회(오삼불고기/라비엣 레스토랑/노니보쌈 정식) 🕒 쇼핑 : 4회</p>	<p>하나골프 AVGF10 [골프+관광] 36H + 4명이상 출발가능 하노이 골프+하롱베이 5일</p> <p>총 상품가격 1,0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p> <p>☑ 호텔 : 4성급 호텔 또는 미정 ✈ 항공 : 비엠펙 항공 (VJ 항공) ☑ 포인트 : 마스크팩+간식바구니 현지 제공 ☑ 특식 : 2회(오삼불고기/센 레스토랑 뷔페식) 🕒 쇼핑 : 3회</p>
--	---

무안출발 하노이 전세계 공통 혜택

- 무제한 생수 제공
- \$50 상당 비경투어 패키지, 골프(AVGF10)상품 한정
- 푸드팩 제공 (단독여행상품 제외)

* 푸드팩(뽕, 누룽지, 김, 스낵류) 구성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정보보험, 현지관광보험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원유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함치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방문 일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보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립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 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휴일 2일/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 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천만원 가입) * 항공료 또는 항공기에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4 여행 유의, 여행 자재, 필수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